

금남로에서

정재현



“지금 평양에서 고쳐 지을 것은 보통문만이 아니다. 물건이야 허물어지면 고치면 되겠지만 백성의 삶이 허물어진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한단 말인가” 조선시대 영조·정조 때의 문신인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평안감사 시절 퇴락한 평양 보통문을 중수(重修)한 후 현판에 남긴 글이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이다.

가구 20% 빈곤층 전락

이를 보면 위정자(爲政者)들이 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하다. 외견상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위정자들의 걱정과는 무관하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만 더 커지고 있다.

요즘 정치권과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

이다. 정치권은 여, 야 그리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서민 경제’와 ‘서민 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출범 초기 ‘부자 감세’ ‘키업 프렌들리’를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중반부터 ‘친서민·실용’으로 간판을 바꿔 걸었다. 이런 양상은 6·2 지방선

서민의 삶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심하다. 마치 대한민국이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나라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이쯤 되면 우리 서민들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 없이 두 다리를 뚝 뚝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치인과 정부가 모두 나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기대가 크면(사실은 이들의 말을 곧이 곧 대로 믿는 서민들은 없었지만)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세상 형편은 위정자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는 갈수록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3% 줄었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부채는 1년 새 6.6%나 급증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빚만 쌓이면 그 집은 길거리로 나왔는 것 외에 다른 도리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한계상황에 몰린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는 1년 전에 비해 13만4천725 가구가 증가한 305만8천 가구로,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1천692만 가구의 18.1%에 이른다.

거의 5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인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 심화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 격차는 5.76배 벌어져 1년 전보다 0.05포인트 커졌다. 이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기회복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말하고 있다. G 20 정상회담 우치를 계기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선전한다. 댄쿠버 등 세계 올림픽의 선전은 국운(國運) 융성의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 살림살이는 더 고단해지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촘촘해져야 할 사회안전망은 더 엉성해졌고, 늘려야 할 복지예산은 외려 깎였다. 위정자들이 외치고 있는 서민경제, 서민정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위정자들에게 서민은 단지 1표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일까.

가계 흑자가 곧 서민정치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는 성장의 과실이 전 계층에 고루 미치지 않고 수도권과 대기업, 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나”라는 한 TV 개그 프로의 대사가 유행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서민경제, 서민정치는 성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서민의 가계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는 일부터 힘을 쏟아야 한다. 서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과 선진사회 실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위정자들은 흔들리는 서민가계를 바로 잡지 못하면 나라 살림살이도 거덜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물어져 가는 백성의 삶을 고쳐주는 정치인,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를 보고 싶다. 지나친 욕심일까.

〈논설실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평칼럼

박행순



며칠 전 집안 어른의 구순생신 잔치가 있었다.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 금로벌 시대라고는 하지만, 4대 가족과 가까운 친척만 60명이 미국에서 모인 이번 잔치는 여러 면에서 특별했다. 이날의 90세 주인공은 암전히(?) 있지 못하고 모든 순서와 절차가 자신의 지휘 하에 진행되도록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우선 눈에 띄었다.

잔치는 애국가로 시작하여 4절까지 불렀다. 우리는 애국가를 1절만 부르는

다.

청춘이 지나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청춘’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경이로우면서도 한편 두려웠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청춘을 주장하는 그 완강함,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닌 그들이 휘두르는 지팡이가 불안하고 불편했다.

여러 질문들이 떠올랐다. 청춘은 진정 나이와 무관한 것일까? 현실에서 진짜 청춘은 무엇인가? 꿈과 이상이 없이

90세의 청춘

것에 익숙하고 통상은 개인의 경사에 이렇게 애국가를 불러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만사화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나라 사랑을 환영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분위기였다.

다음 순서로 백발이 성성한 주인공이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을 낭송하였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첫머리 아이와도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의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분은 그 구절에 90세를 추가하였다.

나도 울만의 ‘청춘’을 좋아하여 강의 노트 앞쪽에 실고 학생들에게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강조한다. 내가 젊은 청춘을 향하여 부르던 이 노래가 뜻밖에도 이날, 구순의 노청춘(老靑春)에 의하여 예송되고 있었

취업직장에 전전공하며 오늘을 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울만의 ‘청춘’은 어떤 의미를 줄까? 이 노청춘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등등.

나는 이 구순의 노익장에서 울만이 노래하는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엿보았다. 스피드와 쾌락, 그리고 무사와 안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소유해야 할 청춘의 조건들이었다.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젊은이들을 깨우면서 ‘후청춘’을 사는 것도 고령화시대에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 같다. 한 방법으로 개인의 호를 따라 ‘OO아카데미’를 만들어 평생 교단에서 축적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관심 있는 분들과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춘’은 노래로만 끝나지 않는다. 아름답고 또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단법인 국제과학문화협회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생명 지켜주는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 순찰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연중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전자들의 생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오토바이를 타는 연령대별로 안전모 미착용 이유가 다양하다.

젊은 학생들의 경우 머리 모양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30~50대 농민들은 가까운 거

리를 가는데다, 농사일도 바빠 챙기기 힘들다며 기피한다.

배달원들의 경우 아예 물건을 싣는 바구니에만 안전모를 싣고 다니다가 단속 경찰관이 있을 경우에만 쓰고다니는 형편이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것을 예방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소중한 생명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전현중·영광군

기고

김용민



최근 나주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우연히 지나간 적이 있다. 기반공사가 한참이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지만 문득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즉 빛가람 명품도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던져본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 본사 부지매입 관련 안건을 통과시켜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혁신도시 조성

차단체가 총담하여야 하는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언하고자 한다. 혁신도시는 나주시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나주시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시건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역의 문화와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빛가람 명품도시 건설에 지혜 모아야

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는 지방 공공기업들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느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회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혁신도시 조성이 지지 부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주택도시공사 등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혁신도시 개발사업비 총 3천935억 원 가운데 2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면서 1천490억 원을 은행권 차입 등 자체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업 직원들의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시설 재원을 지자체가 총담하도록 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 부담이나 지방자

혁신도시가 조성된다면 그곳에 새롭게 기거할 주민과 그 주변 원주민과의 관계, 즉 소통과 화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조성과정에서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와의 연계성,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혁신도시 조성 과정을 보면,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내용에만 충실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통해서 광주·전남이 함께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말 그대로 빛가람 명품도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송원대학교 교수〉

외모 지상주의가 부른 성형중독... 자기 성찰 필요

요즘 결혼정보업체에는 등급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성이 외모 점수 만점을 받으려면 키 165cm 이상, 미인, 안경 미착용자, 몸무게 50킬로그램 미만의 마른 형이어야 하며, 비교관에는 여성은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면 외모 점수는 0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참 어처구니없는 세상이다.

이런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사회를 병들게도 한다. 절정적인 신체를 가지고도 어떤 부분에 결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회적·화학적 병리현상을 일컫는 신체변형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층들 사이에서 그런 증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형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키가 작거나 뚱뚱한 사람은 무시해버린다는 풍조, 선천적인 특징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악습이다. 우리 스스로의 자성과 성찰로 이런 풍조를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3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시설

늘어나는 성범죄 광주·전남도 '발등의 불'

부산에서 실종됐던 여중생 이모양이 11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됐다. 용산 초등생 살해, 안양 초등생 해진·예술양 피살, 조두순 사건의 악몽이 재가시기도 전이다.

광주에서도 20대 상습 성폭행범이 최근 한달 간 13~18세의 여학생을 무려 8명이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범인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열흘만에, 그것도 광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신고를 한 직후 ‘보란듯이’ 저질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광주·전남도에서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7년 543건에서 2008년에는 5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월까지만 270건이나 됐다. 전남지역도 2007년 524건에서 2008년에는 100여건이 늘어

난 621건이나 발생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인 아동성폭행범도 광주가 20명, 전남이 31명으로 전국 인구 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은 겹겹이 걸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보호관찰제도 역시 인력 부족이나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20여명의 보호관찰관이 무려 2천500명의 대상자를 관찰하도록 돼 있다니 애초부터 형식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비화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여학생들이 자기 동네에서조차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사회라면 후진국일 뿐이다.

토착비리 척결 이번엔 믿어도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비리에 대한 차단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리실 감찰·공직기강팀, 검찰과 경찰, 감사원 관계자가 비공개로 합동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비리 척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도 이미 사정(正) 태풍권에 들어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지역 내 2~3명의 기초 단체장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19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법 전담 수사반을 운영 중이고 광주·전남 경찰도 토착비리 수사를 토대로 불법 선거사법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비리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각종 비리가 기승을 부려

왔다. 공직자 비리에서부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비리, 교육 비리,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이 비리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리는 형세를 촉내고,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비리는 단순하든 토착적이든 사회를 망들려 하는 주범이다.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대대적인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백년 훤은 일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 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엔 시한을 두지 말고 수사에 나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수사 대상도 특정해서는 비리척결은 하대명년(何待明年)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비리수사가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제단하거나 권력 누수 방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예가다.

無等鼓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나라 5악(岳) 중 남악으로, 전라남·북도와 경남 등 3개 도와 15개 면에 걸쳐 있는 넓고 깊은 산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해서 불어린 이를 지리산이다. ‘백두대간의 맥에서 흘러왔다’고 해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1967년 12월 29일 지정)인 지리산은 천왕봉(1천 916m)이 주봉으로 동서 100여 리에 걸쳐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법, 피아골과 칠선계곡, 한신계곡, 뱀사골, 도장골, 목동골, 대성골 등 무수한 계곡이 지리산에 안겨 있다. 지리산 계곡 곳곳에는 근·현대사의 생애가 남아 있다. 항일의병과 동학혁명군의 근거지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국군 토벌대와 빨치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리산에는 1천500종류의 식물과 421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창한 수림과 충분한 먹이감으로 야생동물에게는 살기좋은 낙원인 셈이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서 불의 화신과 함께 회소악이 날라왔다. 방사한 반달가슴곰(초연기념물 제 329호)이 새끼곰 2마리를 낳았다고 한다. 야생에서 낳은 새끼는 지난해 2마리(1마리 사망)를 포함해 모두 4마리로 늘었고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이제 19마리의 대가족이 됐다.

반달가슴곰들이 초기 어려움과 혹독한 야생 환경을 극복하고 새끼를 잇달아 출산한 것은 종 복원 사업이 성공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접어도 좋을 듯 싶다.

지리산의 먹이자원과 생태적 다양성, 먹이사슬의 건강함이 반달곰을 부양할 만큼 풍부하다는 점도 입증된 셈이다. 지리산 계곡에 아기 곰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회 서 장 부 2200-661 여 련 체 투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미 케 링 국 227-9600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22-773-9331 <F A X 02-773-9335>	문 화 회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